

## 대상분열에 의한 자기도취적 자기학대 -가출 청소년의 심리현상을 중심으로-

임종렬\*, 김순천\*\*

- I. 서론
- II. 연구의 목적
- III. 이론적 배경
- IV. 치료적 접근
- V. 치료과정과 결과
- VI. 결론

### I. 서론

본 논문에서는 해마다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며, 가출 한 다음의 그들의 생활이 어떠한가, 남녀의 비율은 어떠한가,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 청소년들의 가출 양상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는 논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필자들이 통계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가출한 청소년들과 관련된 통계를 안다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임상 실천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가출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청소년들, 사실상 자기 집에서 쫓겨난 청소년들이 겪는 곤욕스러운 삶의 원인과 관련된 병인론, 그리고 증상의 구조적 내용을 정신분석으로부터 진일보된 대상관계이론에 준하여 필자들이 임상 현장에서 대상중심 가족치료를 통해 경험한 사례의 증재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것만을 제시하려 한다.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대구가족상담센터 소장

## II. 연구의 목적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건강하고 착실하고 명석하게 자라주기를 바란다. 자녀들도 부모들이 바라는 것처럼 건강하고 착실하고 명석하게 자라고 싶다. 육체적으로는 건강하게, 정신적으로는 공부를 잘하는 명석한 아이로 자라나서 아리스토텔레스나 아인슈타인과 같은 인류 문화에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천재가 되고 싶다. 그리하여 못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고 싶다. 부모의 염원과 같은 일직선상에서 자녀들은 이러한 소망의 실현을 위한 꿈으로 부풀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타고 난 자질과, 이루고자 하는 소망의 내용과 위대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들과 일부 학자들이 아이들의 자질과 능력에 우열이 있음을 논한다. 그리고 정신과 육체를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여 약한 아이와 강한 아이의 차이점을 강조하며 이를 유전적인 요인으로 처리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머리가 좋고 나쁜 것이 유전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병약한 것도 유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생각이나 개념 혹은 이론과는 달리 생리적으로 특별한 결함이 없이 태어난 아이들이라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동일한 자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성장을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건강한 아이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밖에 없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아이들의 성장 실제를 보면 어떤 아이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병약한 말썽꾸러기로 자란다. 아이들의 자라는 양태가 각기 다른 것은 유전과는 무관한, 관계 속에서 느끼는 자신에 대한 이미지 때문이다.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명석하게 출생한 아이들이 성장해 감에 따라 각기 다른 우열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아이들이 일상을 통해서 거래하는 환경의 차이와 그 차이가 있는 환경에서 유입되는 온갖 정보를 수동적으로 감지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자신에 대한 느낌의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의 차이란 일반적으로 그가 태어나 자라고 있는 가정이 생태학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교육적으로 어떠한 여건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과는 무관하며 그를 기르고 있는 양육자,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마음<sup>1)</sup>이 어떠한가와 관련된다.

양육자의 마음은 자녀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환경으로서, 자녀의 생사를 결

---

1) W. R. D. Fairbairn, *Endopsychic structure considered in terms of object relationships*, In: *Psychoanalytic Studies of the Personality*,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52, pp. 82-135.

정하고 인간으로서의 성패를 관장하는 위력을 지닌다. 양육자의 마음이 온화하고 부드러우면 자녀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될 것이고, 양육자의 마음이 거칠고 냉정하면 자녀는 거칠고 냉정한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될 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대부분의 양육자(어머니)들은 어떻게 자녀를 훌륭하게 기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모른다. 그러면서도 이를 익히려는 생각을 해 보지도 않은 채 성급하게 양육자가 된다. 이러한 양육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초월하여 관계 속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 자녀가 원하는 의미의 내용들을 자녀가 필요로 하는 관계의 모형 속에 담아 되돌려 보낼 수 있는 용전(容傳=containment)의 능력을 갖지 못한다. 그리하여 양육자의 역할을 하는 어머니들은 자기의 기분대로 자녀들을 다루기 때문에 자녀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라지 못하고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도 자라지 못하게 된다.

대부분의 양육자들은 자녀를 올바르게 기르기 위해 잔소리를 하며 간섭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매를 때리며 무섭게 처벌을 가한다. 자녀의 바르지 못한 행동을 고쳐 주려고 하는 모-자녀 관계 속에 자녀의 서투른 일상을 다루는 양육자의 태도에는 양육자로서 자녀의 장래를 위해 도움이 되려하는 배려보다는 양육자 자신이 그의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유기불안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자신의 분열된 대상표상을 대리대상(양육하고 있는 자녀)을 통해 만회하려는 필사적인 매달림(clinging)의 강한 욕구가 자녀를 괴롭히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아이를 위해서..."라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되어 은닉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 학대가 마치 자녀들을 위한 것처럼 보인다.

유기불안에 시달리는 양육자는 자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 주는 경향이 강하다. 자녀가 자기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상관하지 아니 하는 양육자는 자녀의 의사와 능력을 무시하고, 마치 자녀를 위해서 해 주는 것처럼 자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며 자녀의 무력함을 비판하고, 자기를 과대 조명하며 "너 때문에 힘들어 못 살겠다."고 탄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양육자에 의해 양육되는 자녀는 자신감을 잃고, 긍지를 가질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나약한 아이가 되는 것이다.

자녀를 귀하게 여겨 과잉보호하는 양육자에 의해서 양육된 아이들 역시 매를 맞는 학대 속에 자라난 아이들처럼 나약하고 무력하다. 과잉보호 역시 능력 박탈을 조장하고 결과적으로 병리적 성격을 형성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나약해진 아이는 우울해 하고 화를 잘 내며 무조건 반항하는 아이가 되며, 우울과 울화와 반항은 내향성 공격형 성격을 창출해 내게 된다. 양육자의 지나친 간섭에 저항하는 아이는 언제나 자신의 저항이 부당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러나 아이에게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다만 이로 인해서 유발된 죄의

식을 가질 뿐이다. 죄의식은 의욕상실을 조장하고 이를 관장하는 양육자의 간섭은 더욱 강화된다. 양육자의 간섭이 강화되면 될수록 아이는 점점 더 나약해지고 게을러진다.

아이가 아이 시절에 아이답게 자라지 못하면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도 어른답지 못하다. 이는 아이의 의지가 그로 하여금 아이답게 자라지 못하게 하거나 그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하게 한 것이 아니고, 아이를 양육하는 양육자인 어머니가 혹은 아이를 양육하는 어떤 사람이 아이에게 아이답지 못하게 자라게 했을 뿐 아니라 아이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은 어른스러운 행동만을 하며 자라주기를 강요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항상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환언하면 아이가 아이였을 때 그의 양육자로부터 아이다운 행동을 하는 것을 거절 당하고 어른스러운 행동만을 강요 당했다면, 그는 아이답지 않게 어른스러운 행동만을 고집하고, 정작 어른이 되었을 때는 어른스러운 행동을 하기를 사양하고, 아이같이 철없는 행동만을 끌라가며 하려 하는 '어른 아이'가 되고 만다는 것이다.

'어른 아이'의 양육자들은 일반적으로 양육자 자신들이 어른 아이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듯 아이가 아이였을 때는 그를 양육하는 양육자가 아이의 운명을 결정하는 절대자의 역할을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아이가 성장하여 어른이 되었을 때는 어른이 된 그 아이를 양육한 양육자의 운명을 재결정해 주는 절대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양육자와 피양육자인 자녀 사이에 놓여진 이러한 역할상의 추이는 양육자 자신이 그의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성취했어야 할 대상통합과, 자녀의 성장 초기과정에서 이룩했어야 할 대상통합의 실패로 인한 대상항구성의 미정립에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낙후한 이론에 근거한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청소년의 가출문제는 가출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회환경적 제요인에 원인한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들의 견해 특히 심리치료 이론계의 최신이론으로 채택되어 활용되고 있는 대상관계이론에 의하면 사회환경적 제요인이 제아무리 열악하다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모든 청소년이 가출을 하는 것은 아니다.

양육자인 어머니 혹은 아이를 양육하는 어떤 사람(대상)과 피양육자인 아이(자기)의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이 원만하지 못했을 때 출현하는 애욕적 파생물(libidinal derivative)로써의 분열(splitting) 현상은 성장 초기의 아이에게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필요 불가결한 심리적인 현상이지만, 지속적인 분열 작업을 강요하는 외부(대상)의 압력은 대상통합에 필요한 에너지를 소진시켜 대상에게 매달리게(clinging) 하는 경계선적 성격을 갖게 한다. 이러한 아이가 성장하여 청소년이 되었을 때의 생활은 양육자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돌려 주는 문제아로

서의 방황으로 일관하게 되는 것이다. 곧 가출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성격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관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론적 접근을 시도하여 그 효율성을 제시하려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Ⅲ. 이론적 배경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의 가출문제는 기존의 어떤 이론(성격이론, 인지이론, 대인관계이론등)을 적용해도 적당한 치료적 효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적응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과 병리적 양상을 연계시켜 치료기간을 단축시키고 그 효과를 최장기화하기 위해 최선의 이론과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치료자로서 고려해야 할 당연한 윤리이다.

본 논문에서 활용한 대상관계이론은 영국의 정신분석가 Klein에 의해 1927년에 창시되어 Fairbairn(1944), Winnicott(1945), Bion(1958), Bowlby(1969) 등의 저명한 학자들이 영국 대상관계이론을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미국의 학계와 임상계는 Jacobson(1954), Mahler(1975), Meissner(1971), Kernberg(1972), Masterson(1981), Rinsley(1975) 등과 그 밖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론가들이 대상관계이론을 토착화시키는데 커다란 공헌을 했다.

대상관계이론은 혹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20세기 초의 이론이 아니고 21세기를 향한 현재의 이론으로서 구미에서는 대상관계이론의 전문 용어를 모르면 심리학과 관련된 회의나 세미나 등의 모임에 참석할 수 없을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는 이론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세계적인 이론을 이 땅에 소개한다는 의미에서 청소년의 가출문제에 대한 병인론적 이해와 치료기법을 대상관계이론에 의해 제시하려 했다.

#### 1. 대상 분열

대상분열은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에 양육하는 사람(어머니=대상)과의 관계에서 겪는 사건들과 연계되어 아이의 심리 내부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정신적인 자폐 상태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모든 아이들은 그가 처음으로 만나서 생활하게 되는 어머니(대상)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경험을 쌓아가며 삶의 의미

와 지혜를 배운다. 아이가 성장하는 오랜 세월 동안 어머니는 아이가 필요로 하는 물질과 정서를 제공하는 유일한 대상으로서 아이의 주위에 존재하는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지칭하는 어머니의 존재는 그 중요성을 논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막강하다.

Freud와 같은 학자들은 이러한 어머니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물질(젖)과 성적 만족에 두었으며 Fairbairn과 같은 학자들은 파지와 관계 속의 편안함에서 느끼는 만족에 두었다. 물질과 성, 파지와 관계의 대립되는 이론은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나 Freud가 Klein에게 최고의 권위자로서의 자리를 내 놓음으로써 관계 이론이 오늘날 인간의 심리현상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는 이론으로서 인정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대상의 중요성은 더욱 강화되었다.

대상은 아이의 건강과 병약함, 명석함과 우둔함 그리고 나아가서는 삶과 죽음까지도 관장하는 절대자로서, 생활력이 전무한 아이의 양육을 전담하는 어머니 혹은 아이를 양육하는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대상분열은 아이의 심리가 최초로 기능을 시작하는 초기 발달시에 시작해서, 그의 자아가 완성된 형태로 출현하는 생후 36개월이 될 때까지 계속된다. 그러나 대상분열의 강도는 출생 초기부터 자아가 완성되는 시기 까지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약해지면서 그 과정이 거의 완료 되지만 사실상 일생을 통해서 지속되는 심리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가 육체적으로 탄생하여 성장을 거듭해 가듯 그 아이의 심리 현상도 육체적인 성장과 더불어 성장을 계속한다. 육체의 성장이 초기에는 어머니의 젖에 의해서 그리고 후기에는 섭취하는 음식에 의해서 성장하듯이 정신적인 성장은 대상의 마음에 의해서 표출되는 파지에 의해서 성장한다.

양육자인 대상의 정동이 부정적이고 그 정동에 의해 파생되는 파지가 부정적이라면 아이는 본능적으로 그 대상을 함입하고 함입된 대상을 분열시켜 불만스러운 대상 전체를 무의식 안으로 억압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불만과 대상을 거부했다는 고통스러운 느낌을 처리하게 된다.

영아에 의해 거부된 부정적인 대상은 곧 두 개의 범주로 분류된다. 그 하나는 거부하는 대상이고 다른 또 하나는 흥분을 야기시키는 대상이다. 아이의 심리 내부의 대상은 대상 자체의 의사에 의해서 분열되거나 억압될 수 없다. 다만 고통을 주는 대상과 관련된 자아의 고통스러운 부분만이 고통스러운 관계로 특성화될 대상과 함께 분열될 뿐이다. 분열에 의해 범주화된 거부하는 대상과 관련된 정동은 분노, 불안, 슬픔으로, 흥분시키는 대상과 관련된 정동은 짜증스러움과 지속되는 고통으로 구체화되어 억압된다. 분열된 대상에 의한 정동은 억압과 무관하게 계속된다.

분열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자기와 타인(대상)을 “모두 좋고” “모두 나쁜” 것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Fairbairn<sup>2)</sup>은 이를 내부의 대상과 외부의 대상으로 분류

하여 외부의 대상은 무조건 좋은 대상이고 내부의 대상은 무조건 나쁜 대상으로 구분하여, 좋은 대상은 외부에, 나쁜 대상은 내부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의 대상 중 나쁜 대상만을 함입하여 억압시키고, 좋은 대상은 외부에 그대로 있게 하여 아이의 생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남아있게 한다고 했다.

Fairbairn의 이론에 의하면 현실 감별력과 자아 경계선이 확고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은 무조건 좋고 내부에 함입된 대상은 무조건 나쁜 대상으로 생각되어 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는 외부의 부모는 언제나 좋고, 함입된 내부의 나쁜 대상으로 구성된 심리기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 자신은 언제나 야단을 맞아야 하고 매를 맞아야 하는 나쁜 아이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아이의 대상함입과 분열, 억압 그리고 대상의 외면화와 투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감을 발달시키고 대상으로부터의 물리적 격리(떨어져 나감)를 시도한다. 육체는 이미 탄생했지만 탄생한 육체를 관장해 줄 정신적 기능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미비한 정신적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자폐의 각질 속에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율성(Autonomy)에 의지하여 제 2의 탄생을 준비한다. 그것이 곧 초기에는 대상분열로 나타나고 후기에는 격리개별화<sup>3)</sup>로 이어져 완성된다.

대상분열과 격리개별화는 상호의존적,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아이는 이를 통해 정신적 탄생을 위한 성장을 시도한다. 대상을 분열시키는 초기의 경험은 대양감의 회복과 만능감의 쟁취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고통이 전제되어 있고 긴장이완에 의한 만족을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아이(libido 혹은 원시적 자아)가 원하는 대로 항상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것<sup>4)</sup>은 아니다.

목적 달성과 실패는 아이로 하여금 대상과의 종속(혹은 애착)관계를 공고히 하게 하기도 하고 와해시키기도 한다. 자폐기의 아이는 공고한 종속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공생기(4개월-18개월)의 아이는 종속관계를 즐기면서 격리개별화라는 새로운 도약을 시도한다. 물론 자폐기에서의 탈피와 공생기 동안의 완만한 애착 관계 모두가 격리개별화로 이어지는 일종의 마라톤과 같은 것이기도 하지만, 성격 발달 과정의 각 단계에는 단계별로 성취해야 할 과업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룩해야 할 것을 이룩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급하며 중요하다. 왜냐하면 특정 단계에서 성취해야 할 과업을 성취하지 못하면 다음 성취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를 놓치게 되고, 설사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성취해야 하는 심리적인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취가 지연된다는 것은 그 만큼 고착을 조장하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2) Ibid.

3) M. Mahler, F. Pine & A. Bergman,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s*, New York, Basic Book, 1975.

4) O. Kernberg, "Early Ego Integration and Object Relations",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 1972, 193, 233-314.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심리적인 고착이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

대상이 좋고 나쁜 것은 아이가 관리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아이는 다만 대상이 공급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 외에는 아무 것도 취할 수 있는 조건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과 자기(아이)관계에서의 모든 주도권은 대상에게 주어져 있으며 아이는 다만 성장의 열차에 무임 승차를 하여 수시로 바뀌는 주변 환경을 즐기거나 슬퍼할 수 있을 뿐이다. 좋은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주로 하는 양육자와 더불어 자폐기와 공생기를 보낸 아이는 격리개별화기의 온갖 모험을 즐기며 하나의 건강한 인간으로서 새롭게 탄생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쁜 대상으로서의 역할에 급급했던 양육자에 의해 성장한 아이는 자폐기를 잘 보내지 못하여 생기는 고통을 해소하지 못하며 자폐 증세를 보이게 되고, 공생기를 어렵게 보낸 결과로 우울증을 가지게 되고, 격리개별화기의 격리의 실패와 무산된 개별화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게 되므로 미래를 향한 성장은 포기해 버리고 과거 지향적인 행동으로 대상을 괴롭히는 아이가 되어 버린다.

이러한 심리 내부의 현상은 곧 대상인 어머니와의 관계적 실패로 인해 성장을 포기한 원인이 되며, 삶을 향한 긍정적인 의미 상실을 선언하는 불행한 결정으로서 가출이라는 자기도취적 자학을 하게 하는 성격 특성을 갖게 한다고 할 수 있다.

## 2. 자기 도취적 자기 학대

자기도취적 자기 학대는 만능감과 억압된 좌절감에 의해 분열된 대상을 향한 분노와 적의식이 제후하여 대상(어머니)에 대한 하나의 보복 행위로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상을 향한 보복 행위로서 나타나는 자기도취적 자기 학대는 근본적으로 대상을 겨냥한 가학적인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언제나 자기(자녀) 자신에 대한 파괴적 피학성의 행위로 일관하는 경향이 강하다.

대상을 향한 보복 행위가 절대적인 강도를 지니고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한 자기의 의도와는 달리, 그 행위가 대상에게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간접적이고 선택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자기(자녀)에 의해서 의도된 대상(어머니)을 향한 보복은 그 대상이 그 행위를 얼마나 심각하게, 얼마나 많이, 어떠한 방법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이미 표출된 보복 행위의 질과 효과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대상을 겨냥한 보복 행위는 그 자체가 은유적이고 암시적이므로 간접적일 수 밖에 없다. 또한 그 행위를 받아들이는 대상 역시 특이한 감성과 성격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행위에 담긴 은유적이고 암시적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 할 수가 있으며, 설사 이해한다 할 지



라도 왜곡하여 이해하거나, 혹은 이해하려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녀가 대상을 향해 겨냥한 보복이라는 화살이 대상이라는 과녁을 맞추느냐, 맞추지 못하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자녀)의 손을 떠난 보복이라는 정동의 독이 묻어 있는 화살의 목표물로서 혹은 과녁으로서의 역할을 대상(어머니)이 감당해 낼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결정에 따라 보복 행위는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대상을 향한 자녀의 보복 행위는 선택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령 대상의 정동과 자기의 정동이 일치하여 대상이 자기의 보복적인 행위를 심각하게 접수한다 할 지라도, 대상이 겪는 감정상의 고통은 자기의 기대에 미치지 않는 미세한 정도에 불과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떠한 감정적인 자극도 대상에게서 불러일으킬 수 없게 되는 허망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대상의 심리적인 현상은 대상의 자기-대상 분열 정도가 어느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대상이 겪는 고통이나, 겪어야 하는 고통은 자녀의 격기개별화를 위한 내부의 의지나 외부의 시도와는 무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대상(어머니)이 자기(자녀)의 보복적인 행위, 예를 들면 가출과 같은 행위를 했을 때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화를 내고 슬퍼하며 연민의 정을 금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울화와 애도와 고통의 원인이 자기(자녀)의 가출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대상이 된 지금의 대상 자신이 그 자신의 대상으로부터 유기 당한 과거의 유기 원형에 준한 감정의 폭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자녀)의 가출과는 무관한 감정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대상의 감정적 표현을 자기의 가출과 같은 보복행위와 연계시켜 해석해 본다면, 자기의 가출은 다만 대상의 유기 원형을 자극하여 과거에 경험한 유기감을 현실에서 재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대상의 보복에 대한 반응 정도가 어떠했던지 아니면 그 내용이 무엇이었던지와는 상관없이 대상의 유기감을 자극했다는 사실과, 이를 애도하는 정도에서 자기는 자기가 의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자기도취적 자만심을 가진다. 그리고 자기가 겪어야 하는 방랑과 빈곤과 기근의 고통을 잊고 자기학대적 자기도취에 빠진다.

자기도취적 경계선 성격의 사고는 많은 부분이 원시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원시적 사고 활동의 내용은 병리적 과생물인 원시적 욕구와 관련된 성장 초기에 내면화 한 대상 관계를 활성화 시킬 뿐만 아니라, 인지 과정의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분열을 방어기제로 사용하여 원시적인 자기 이미지와 대상 이미지를 통합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자아 경계선을 확립시키지 못하게 하는 교란 현상이 일어난다.

자아가 발달하여 통합 능력을 가지게 되면 안정된 자아의 정체성을 위해 초기와 후기의 함입과 동일시를 통합시킬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자기도취적 경계선 성격의 조작은 이러한 통합 기능에 발달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원시적 자율성의 결함으로 인해 불안 억제를 잘 할 수 없게 된다. 성장을 방해하는 내용물을 함입하여 자아의 통합이 저해됨으로써 공격적 욕구가 파생되고 기능상의 장애가 생기며, 이것이 자기도취적 경계선이 가지는 가장 심각한 병리가 된다 할 수 있다. 특히 과도한 공격성은 초기의 격심한 불안 그리고 자기-대상 이미지와 관련된 자기-공격적 정동으로 부터 파생된 것이다.

따라서 혼합된 자기-대상 이미지가 감별되면 이들 이미지와 관련된 공격적 욕구가 소멸되고 동시에 상대적으로 잘 정돈된 자아 경계선이 확립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상반되는 자기-대상 이미지를 통합하지 못 할 경우에는 온갖 종류의 정신병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분열은 긍정적인 함입과 동일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아를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이들의 존망에 대한 불안이 대상과의 용해를 거부하는 원래의 기제를 유지하게 된다.

공격성이 중화되기 위해서는 자아의 경계선 확립에 필요한 긍정적 함입과 동일시와 부정적 함입과 동일시가 통합되어야 한다. 그런데 분열이 병적으로 과도해지면 공격성이 충분한 중화 과정을 거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아의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가 고갈되어 자아 성장의 정지가 초래된다.

이렇듯 분열은 자아를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억압보다는 역부착을 적게 요구하게 되므로 취약한 자아는 쉽게 분열의 대상이 되고 나아가서 자아와 분열간에는 서로 힘을 겨루어야 하는 불행한 반복 현상이 초래되어, 결과적으로 분열에 의한 충동 억제의 취약성은 강화되게 된다.

취약한 자아가 계속적으로 분열을 사용하여 이에 따라 억압의 기능이 약화되면, 파행적으로 순환하는 역부착이 우회하여 의도되지 않았던 어떤 지점 즉, 원시적 자기도취감이 활성화 되는 지점에서 투사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래서 자기는 하지 않고서도 했다고 생각하고, 할 수 없으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능감과 같은 느낌으로 충만한 상태가 된다. 결국 자기가 자기에게 공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무서운 것이 없도록 유도하여 가솔과 같은 무모한 행동을 예사로 하게 하는 병리적 성격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멸시와 거부와 학대의 대상이 되었을 때,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 다만 자기가 너무 똑똑하고, 잘 낳고, 무엇이든지 잘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 질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일소에 부칠 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공부를 하지 않는 특정 청소년들이 충고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모든 것에 무조건 반항하려 하며 달려 들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루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만 탐닉하며, 기회만 있으면 가출을 시도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집중적인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정신병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IV. 치료적 접근

개인의 정신 병리를 위주로 해서 출발했던 심리 치료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개인 위주에서 집단으로, 집단에서 가족을 위주로 하는 변천을 겪어 왔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전문가들이 가족의 역동과 병리 관계를 중히 여기면서도 개인만을 치료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상황에 따라서 개인과 가족 사이를 오가며 어떤 때에는 개인만을 그리고 어떤 때에는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여 치료에 임하는 경우도 있으며, 가족 치료만을 고집하는 경우도 있다.

치료의 주된 대상이 개인에서 집단으로 또한 가족으로 변하는 것은 치료에 동원된 이론이 정신분석인가 혹은 행동수정인가 아니면 정신분석 지남적 역동 심리학인가에 따라 치료 기법들이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성격 발달 이론에서 정신병리의 원인을 개인의 문제로 보는 학파에서는 개인 치료를 위주로 했을 것이고, 관계 속의 문제로 보는 학파에서는 관계를 중심으로 치료에 임해야 했을 것이며, 주변 환경이라는 변수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학파에서는 주변 환경을 통제하고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기법을 위주로 해서 치료에 임해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심리 치료가 개인에서 집단으로, 집단에서 가족으로 옮겨 오는 동안에, 치료의 바탕이 되는 이론도 이에 상응하는 변천을 겪어 왔다.

정신분석에서 출발한 심리 치료 이론과 모형이 250 여가지가 넘는 이론을 다 산하고 춘추전국시대와 같은 혼란기를 지나, 인지이론(Cognitive Theory), 대상관계 이론(Object Relations Theory), 대인관계 이론(Interpersonal Theory), 진화이론(Evolutionary Theory), 그리고 신경생리 이론(Neurobiological Theory: Richar A. Depue)<sup>5)</sup> 등의 이론으로 좁혀질 때까지는 100 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어떤 이론이든 이론이라면 이론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그 이론의 논리성과 과학성의 함량에 따라 그 가치가 인정되어 왔다. 심리 발달 이론 역시 논리성과 정확성 그리고 과학성에 따라 그 인지도가 높은 이론이 있다.

오늘날 많은 이론들 가운데서 구미 제국에서 가장 많이 인정받고 활용되고 있

---

5) John F. Clarkin & Mark F. Lenzenweger, (eds) *Major Theories of Personality Disorder*, New York, The Guilford Press, 1996, pp. 36-105.

는 이론이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한다면 의아해 할 지 모르겠지만, 그 이론을 전개하고 발전시키고 임상에 활용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세계적인 치료가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작금의 실정을 믿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떻든 대상관계 이론은 필자가 임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주 이론이며 대상중심 가족치료 기법은 필자가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이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대상관계이론과 이를 적용한 대상중심 가족치료 접근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대상관계 이론에 의한 대상중심 치료 접근은 관계를 중시한다. 특히 대상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대상관계 이론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이유는 대상의 개입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지대한 영향을 치료적 변수에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외부에 존재하는 형이하학적인 대상은 자기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정신을 부화시키는 작업을 전담하며 나아가서 형이상학적인 내부대상의 원형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가지는 자기에 대한 이미지와 관심의 변화가 자기의 분열된 자기-대상관계 단위의 질을 변형시킬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된다.

모든 정신병리의 원인은 자극과 반응의 불균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자극과 반응의 불균형은 본질적으로 자극과 반응을 일으키고 공급하는 대상에 의해 결정되므로, 자기는 이를 분열시키는 과정에서 좋은 것으로 분열시키는가 아니면 나쁜 것으로 분열시키는가의 작업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만성적인 자기도취적 자기 확대에 젖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치료적 개입에서는 그들이 분열로 부터 항구성 정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상 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상의 혁신이 없는 치료적 개입은 그 개입 자체가 효과적이라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효과에 불과하며, 그 효과에 의해 동원된 에너지가 고갈될 때에는 그 에너지가 대상 혹은 자기 발전에 의해 재충전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분열과 분열과 관련된 원시적 동일시, 투사적 동일시, 부인(denial) 그리고 전능감 등의 기제는 자기도취적 경계선이 나타내는 특징적 증상들이다. 분열은 냉정하고 적대적이고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대상 결핍에 의해 야기된 심리적인 기근을 억제하지 못하는데서 기인한다. 이들 기제들은 원래 외부의 대상과 관계되고, 정상적 발달에서 분열이 끝나야 하는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분열이 계속 일어나는 경우에는 내부의 대상과 관련된다.

분열은 언제나 대상을 겨냥하는 보복적 성향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 보복을 감행할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기(청소년)는 오히려 이러한 자기를 저주하고 확대하게 된다. 이렇게 발생하는 자괴감에 대한 내성 결핍으로 인해 자기도취적 경계선 상태를 갖게 되므로, 치료 초기 부터 임상가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작업은 바

로 대상 이미지를 정립하는 것이다.

대상이미지의 정리(reorganization)는 본질 현상을 극복하게 하여, 원시적 동일시와 투사적 동일시 부인 그리고 전능감을 갖지 않아도 불안과 좌절이 느껴지지 않도록 대상이미지를 안정되고 인간미 넘치는 이미지로 바꾸어 주는 것이다. 대상을 치료하여 좋은 대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자기를 치료한다는 것과 동일선상에 있다. 왜냐하면 대상이 표출해 보이는 대상이미지는 그 대상의 대상이미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대상 내부의 이미지를 정리하는 것이 곧 그 대상으로 하여금 대상으로서의 좋은 이미지를 방출할 수 있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 기법은 구조적 치료에서 동원되는 표현적 치료와 탐험적 치료였다.

## V. 치료 과정과 결과

### 사례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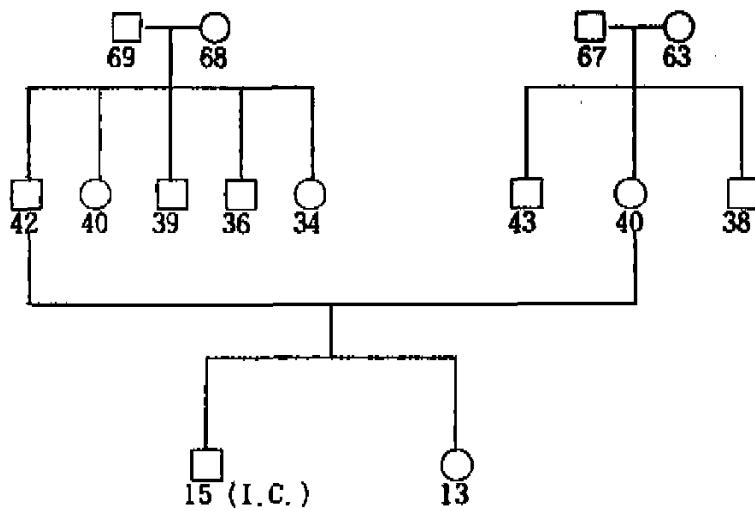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인용하는 사례는 1994년 9월 20일 부터 1996년 4월 13일 까지 필자들(상호 보완적 협동 치료자)에 의해 치료적 중재를 받은 사례로서 내담자 가족의 허락을 받고 소개된다.

본 사례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 형제로 구성되어 있다. 본명은 비밀보장 관계로 가명으로 대체되어 있으며 그 밖의 사항들도 유사한 형태도 바뀌어져 있다. 구체적인 인적 사항은 <그림 4.1>과 같다.

아버지 박 상수는 3남 2녀 중 맏이로 태어났으며 양친부모는 아직 생존해 계신다. 어머니 오 지은은 2남 1녀 중 차녀로 태어나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의 남편이 Y재벌회사에 근무하고 있을 때 친구의 소개로 만나 부모의 허락을 받고 결혼식을 올렸다. 그후 슬하에 두 아들을 낳아 기르고 있다. 큰 아들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고 둘째 아들은 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다.

### 제시된 문제

중학교 3학년에 다니는 큰아들 박 영표가 5일째 가출을 했고 그것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가 악화되어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그림 4.1> 가계도

아버지

이름: 박 상수  
 나이: 42  
 학력: 대퇴  
 직업: 자영업(supermarket)

어머니

이름: 오 지은  
 나이: 40  
 학력: 대졸  
 직업: 전업 주부

큰 아들

이름: 박 영표  
 나이: 15  
 직업: 중학교 3 학년

둘째 아들

이름: 박 근영  
 나이: 13  
 직업: 중학교 1 학년

상담 1회 (1994. 10. 20)

일반적인 인상

아버지(박 상수)는 큰 키에 등글넓적하게 살이 쪼여 있는 몸을 유행이 지난 티셔츠와 윤이 나는 상의양복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크고 네모난 하판에 크고 부리부리한 눈을 가진 인상이 만만치 않는 사람으로 보이게 했다. 목소리는 거칠었

고 의도적으로 부드러움을 가미한 듯 했고 자기 이상의 무엇인가를 내 보이려는 것처럼 엿보였다. 얼굴빛이 까맣게 변해 있는 것으로 보아 술을 많이 마시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했다.

어머니(오 지은)는 중년 부인으로서 비교적 날씬한 몸매에 값비싼 레이스가 달린 옷을 입고 있었으나 어울려 보이지 않았다.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특히 남편을 향해 말을 하거나 남편에 대한 말을 할 때는 몹시 통명스러워 졌다. 피부는 거칠었고 그 거친 피부에 바른 화장품은 군데군데 지워져 있었으며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많이 바른 마스크라는 눈 주위에 번져 나와 있었다.

### 상담내용

T(상담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남편과 부인을 번갈아 보며 누가 먼저 말을 하겠느냐는 눈길을 주었다.

F(박 상수): “저 다른 게 아니구요-”

M(오 지은): “사실은요. 우리 아들이요 ----”

동시에 두 사람이 말 문을 열었다. 서로가 바라보며 내가 먼저 말을 하겠다는 순간적인 표정싸움이 있었다.

F: “당신이 가만있어. 내가 먼저 말을 할 테니까”.....

부인을 가볍게 건드리며 밀어내는 시늉을 한다.

M: “영포에 대해서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잘 알아요. 당신은 가만 있어 봐요. 사실은요...”

사실을 말하려 할 때

F: “어허이 내가 먼저 말을 한다고 했잖아. 이 사람 참----”

불만스러운 눈으로 M과 T를 번갈아 쳐다보며 말을 계속하려는 사이를 부인이 비집고 들어온다.

M: “당신은 항상 이렇게 명령조로 나를 억누르려 해요. 네? 안 그래요 네? 정말 힘 들어요. 당신이라는 사람은...”

여기에서 우리는 왜곡된 부부관계의 일면을 볼 수 있다. 이 부부는 서로가 관계적 의미를 상실한 대화 속에서 일종의 적개심 또는 원한을 키우며 살아온 통속적인 부부관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로가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증오심이 강한 대화의 내용에는 서로가 원하는 좋은 대상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하고, 분열된 나쁜 대상을 외면화하여 그 외면화된 자기의 부분을 강하게 질타하고 재내면화함

으로서 분열된 자기-대상관계의 부분단위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고집이 외견상 같이 살아가기가 어려운 관계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이들 부부가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서로가 헤어져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서로가 필요로 하는 증오의 대상이 되어 주는 것에 있다. 특히 부부가 함께 가까이 있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멀리 있지도 못하는 유기불안이 이들 부부를 결속시키고 있는 유일한 이유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M : “이 사람은 말이죠. 마누라도 자식도 없는 사람이고 필요도 없는 사람이라구요.”

뺨히 남편의 얼굴을 쳐다본다.

T : “마누라도 자식도 필요없는 사람이라구요?”

M : “네. 그러니까 자식이 가출을 하고 학교를 그만 들러하고 못된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 신세를 망치고 있는데도 밤마다 술이나 마시고 새벽에나 집에 돌아오는 사람이 이럴 때는 남편입네 아버지입네 하고 참견하려 하잖아요? 전 참을 수가 없어요.

T : “그렇다면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새벽에 돌아오기 때문에 아들이 가출하고 학교에 가지 않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M : “그건 아니구요. 그 애는 원래 못된 아이였어요. 독살스럽기 짝이 없는 아이예요. 날마다 제 동생을 개 패듯 하구요. 에미를 업신여기고 이 사람 그대로예요. 자기 밖에 몰라요... 전에 다니던 학교 친구들이 전부 깡패들이었어요. 학교는 그럭저럭 다녔지만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오토바이나 타고 다니고 그 비싼 모형 자동차나 조립해 가지고 놀면서 돈을 물쓰듯 해서 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려고 이사를 하고 전학을 시켰는데 이사와서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날마다 버스를 타고 전에 살던 곳에 가서 그 애들 만나고 밤늦게 돌아와 녹초가 되어 자고 아침에는 일어나려 하질 않았어요. 그 애를 깨우려면 열번 스무번 방을 들락거리야 하고 끝내는 소리지르고 때리고 해야 겨우 일어나 밥도 안 먹고 학교엘 가곤 했어요.”

T :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그런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 : “죽었으면 하고 바라던 때가 많았어요. 아니면 제가 죽을 것 같아서요.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지만 우리는 정말 함께 살 수 없는 원수같은 사이예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기 시작한다. 부인이 우는 사이를 가르고 남편이 이야기한다.

F : “이 사람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굉장히 냉정하고 과격하고 그렇거든요.”



M : “그러니까 그만 살자고 했잖아요. 당신은 돈 좀 번다고 으스스대고 사람을 무시하고 애새끼는 강패가 되어 피를 말리고 난 정말 이렇게는 더 이상 못살아요.”

F : “그래서 맘대로 해 보라고 했잖아 응. 맘대로 하라구. 맘대로해.”

T : “평상시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M : “평상시가 아니구요. 결혼 초부터 저이는 이랬어요---”

하며 다시 울기 시작한다.

지금까지의 상담에서 애욕적 파생물인 강한 공격성을 노출한 이들 부부관계의 심상에서 원시적 투사와 함입에 의한 분열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들 부부의 생각 속에는 내부의 자극과 외부의 자극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외부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구분해서 말할 수 없는 자아경계선에 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자아경계선 장애로 인해 대상으로부터의 자기표상을 구별해 내지 못하고 자기의 참모습을 볼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로서 유아적 환상과 오늘의 현실과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예로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도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과 상대 배우자를 완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는 대화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나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믿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심각한 대상분열현상을 드러내는 정동의 급격한 변화에서 좋고 나쁨이 순간적으로 결정되는 현상을 본다. 상담은 계속되었고 그들의 걱정과 관심사는 자연히 아들의 가출문제에 집중되었다. 아들이 친구집에 가 있다는 전화 연락은 받았지만 어느 친구집에 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가서 잡아 올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 행방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상담을 계속해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언질을 남겼다. 상담이 종결된 무렵에 M은 통곡을 했고 간헐적으로 가출을 한 아들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겼지만 말을 안 듣고 동생에게 폭행을 하고 하라는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리고 욕하고 미워하는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고 했다.

상담이 끝나고 상담실을 나갈 무렵의 F와 M은 전에 없이 다정해 보였으며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한 인상을 풍겼다.

이번 상담이 1회 상담에 불과했지만 이들 부부가 상담을 통해서 서로에게 가지고 있었던 분노와 적개심을 발산한 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가졌던 적개심이 없어지고 그 적개심이 차지하고 있었던 빈 자리에 다정한 느낌을 채워 서로의 느낌을 순간적으로나마 나눌 수 있는 계기를 갖게 했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M이

“아들을 많이 사랑했었는데-”하는 느낌을 재생시킬 수 있었던 것도 위에서 말한 적개심의 경감상태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라 믿는다.

상담 2회(1994. 10. 27.)

1회 상담 때보다는 부드러움과 안도감이 도는 표정을 하고 큰아들을 동반하고 2회 상담을 받으러 왔다.

### 큰아들(박 영표)의 일반적인 인상

2미터가 넘는 키에 깡마른 몸과 길다란 얼굴에는 걱정과 분노가 함께 어우러져 있었고 찡그림이 없어 보였다.

의상은 평상복을 입었다. 그 옷들은 모두 유명상표가 붙어있는 고급스러운 것이었고 신발은 검은 색의 스웨이드 구두를 신고 있었다.

죄를 짓고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모습과 간혹 손이 파르르 가날뜨게 떨리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한 듯 보였다.

T : “안녕하시죠? 아드님을 동반하셨는데... 이젠 마음이 좀 놓이시겠습니까. 어떻게 잃어버린 아드님을 되찾게 되셨습니까?”

F : “아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거 있잖아요? 지하조직같은 거 있잖아요. 그 친구를 통해서 사람을 풀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3일 전에 동성로에서 친구들과 전자오락실에서 놀고 있는 것을 붙잡아 왔습니다.”

M : “집에 오던 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살림을 부수고 유리창이라는 유리창은 모두 박살을 내고 말도 마세요. 그 때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 양반도 기가 죽어서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서서 보고만 있었어요(원망조다.) 그 때 이 애의 삼촌을 불렀어요. 제 동생어요. (아들을 턱으로 가리키며) 이 애가 그 애 그러니까 삼촌을 그래도 좀 좋아하고 따르는 편이라서 난동을 부리는데 마침 삼촌이 와서 뺨을 몇대 때리고 진정시켰어요. 그리고 그 애가 이 애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 후 지금까지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있어요.”

T : “네 일이 그렇게 됐군요. 원하시던 귀한 아들을 찾으셨다니 우선은 다행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잘생겼는데요. 그리고 인상이 저렇게

순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까지... 야! 자네는 참 억울했겠는데... 모처럼 성공한 가출이었는데... 억울하겠지만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도 안 있겠나? 그리고 또 가출을 해야 하겠다면 그야 간단하지 뭐 안 그랬나?"

S1(영표) : "그 동안에 수없이 가출을 하고 붙잡혀 오고 했는데요. 뭐 괜찮습니다."

T : "그래, 야아! 그런데 말이지 그렇게 쉽게 말해버리면 재미없지 않아? 안 그런가?"

S1 : "안 그런데요."

등명스러운 목소리로 생각보다는 쉽게 대답을 하고 나섰다.

F : "처음 보았을 때는 정말 어떻게 해 버릴려고 했어요. 그 고생을 하고 길러 놓았더니 가출을 했어요. 가출이 뭐니까? 가출이..."

정말 화가 나는지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인다.

T : "그야 뭐-. 어디 가출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출을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사는 것이 지루하고 답답하겠지요."

S1 : "맞아요. 그래요."

하고 한참을 뻘뻘 T를 쳐다보다가 눈을 피했다.

T : "가출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돌아온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지요. 가출은 원래 고생을 동반하는 것이지만 가출을 한 번 하게 되면 고통보다는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고통을 참아야 하고 그러다 보면 부모에 대한 걱정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하지만 비슷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으로 위로하며 지내는 게 일반적이죠. 언젠가는 돌아와야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S1 : (힐끔 T를 쳐다 본 다음에 머리를 숙이고) "어쩔 그렇게 가출을 해 본 사람처럼 잘 알아요."

하며 아주 얇은 웃음같은 것을 얼굴에 보이는 여유를 보였다.

가출은 부모 특히 대상인 어머니에 대한 보복행위로 표현되며 자기도취적 자기 확대로 이어지는 일종의 심리적 반란이라고 할 수 있다.

2회의 상담이 계속되는 동안에 F는 아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많이 했고 M은 빨리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과 학교를 빨리 다녀야 한다는 것으로 큰 아들(S1)을 압박질렀다. 이에 비해서 S1은 말을 경제적으로 사용했고 학교는 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검정고시를 치를 생각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몇 년 후에 공부해서 꼭 합격하고야 말겠다는 게으름스러운 의미의 이야기를 했다.

상담이 끝날 마지막 무렵에

S1 : “ 뭘 하나 부탁해도 될까요? 박사님! ”

하고 정중한 듯 하면서도 통명스럽게 말했다. 갑작스런 질문에 놀랐다는 표정을 하며 S1을 쳐다보며 조용하게 물었다.

T : “무엇을 말이야. 부탁할 게 있으면 부탁하는 게 좋겠지. 자네가 부탁하는 요구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 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S1 : “정말이에요?”

T : “아마 그럴거야. 그렇게 되어야 겠지”

S1 : “그럼요. 저 헬리콥터 하나 사고 싶은데요. 리모트 컨트롤하는 헬리콥터요.”

T : “그럼 하나 사면 되겠군.” 했을 때

M : “아이고!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요. 그걸 어떻게 사요?”

하며 호들갑스럽게 끼어든다. 말도 되지 않는 것을 사달라고 한다는 의미인 것 같았다.

T : “그야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지만 그게 아무리 비싸더라도 아들보다야 더 비싸겠습니까? (S1을 쳐다보며 ) 그걸 꼭 사야 하나? 비싸다는데도.....”

S1: “예 사고 싶어요. 한 150만원 쯤 주면 살 수 있을 거예요.”

T : “그래 좀 비싸네. 상상보다 더 비싼 건 틀림없다.... 그렇지만 사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T가 F와 M을 번갈아 보며 “사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의 의견을 타진했을 때 M이 벌떡 뛰는 듯한 목소리로 T와 S1의 사 주어야 겠고 사야 겠다는 희망에 찬 사고과정을 교란하며 도전했다.

M : “안 돼요. 그렇게 비싼 걸, 그것도 지금 중2한테 어떻게 사줍니까?”

T : “안 된다고 했습니까? 특별히 반대하는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M : “그래요. 물론이에요. 공부해야 할 학생한테 그런 걸 사 주면 공부는 언제하게요?”

S1 : “공부 좋아하네....”

하는 S1의 목소리가 M의 불메인 목소리에 뒤섞여 혼자 말처럼 허공을 헤매었다. S1의 혼자말을 무시하며

T : “장난감 헬리콥터가 없는 지금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M :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T : “그러니까, 헬리콥터가 있으나 없으나 공부를 안하기는 마찬가지로 그

말씀입니까?”

M : “예, 그래요. 그렇지만.....“

이 때 S1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리고

S1 : “됐어요. 됐어요. 씨...”

하며 밖으로 뛰쳐 나가려고 하는 것을 T와 F가 말려 자리에 다시 앉혔다.

T : “공부때문에 사 주실 수 없으시다면 됐습니다. 공부는 제가 책임을 지지요. 그래도 사 주시지 못하겠다면 할 수 없지만요...”

F : “이 사람이... 이거 정말... 박사님이 사 주시라고 하면 사 주는 것이지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박사님이 사 주시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다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 나원 참...”

S1의 얼굴에 행복스러운 빛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머니는 호들갑스럽게도 반대를 계속했지만 결국 S1은 헬리콥터를 한 대 사게 되었고 비슷한 조립용 자동차를 80만원을 주고 2대나 추가로 구입했다. 헬리콥터와 자동차를 구입한 후 S1은 그것들을 가지고 놀며 비교적 평온한 생활을 했으나 그 해 11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도 등교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M의 언행은 언제나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처벌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항애목적 자아와 거절하는 대상이 활성화된 심리내적 현상때문이라고 사료된다. S1이 어렸을 때 S1을 양육하던 M이 배고파하던 영아 S1에게 적시에 적당량의 젖을 먹여주지 않았던 것(상담에서 M이 고백한 일)과 중 2가 된 S1이 무엇인가(장난감 헬리콥터, 자동차)를 가지고 싶어하는 것(배고픔)을 사주지 않으려 하는 것은 S1이 원하는 것(어렸을 때는 젖이고 지금은 장난감)을 공급해 주지 않으려는 저항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S1의 요구에 대한 M의 저항은 표면상으로는 F(남편)에 대한 저주가 S1에게로 투사된 대리 보복이라는 형태로 표현되는 것으로 보일 지 모르지만 사실은 M의 정신내부에 분열된 대상으로 억압되어 있는 M의 친정 어머니에 대한 항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S1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므로써 S1에게 M 자신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가짜 자기의 힘을 동원하여 “너(S1)는 나(M)에게 매달려야 한다.” 그리고 “네(S1)가 매달려야 나(M)는 외롭지 않게 너(S1)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M의 애욕적 파생물인 욕구가 S1을 원시적인 투사의 목적물의 과녁으로 결정하여 M이 그의 정신 내부에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부터의 유기 경험에 의한 불안을 극복하려는 매달림이 S1의 욕구를 좌절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S1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M에게 S1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도록 유도했다.

상담 5회 (1994 11 17.)

큰아들을 대동하지 않고 단 둘이서만 상담실에 들어선 F와 M의 표정은 종전에 비해 조금은 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눈가에 서려 있는 그들의 걱정과 불안은 아직도 그 정도의 강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F는 그를 약간 더 세련되어 보이게 하는 검정색 썬글을 입고 있었고, M 역시 전과는 달리 가벼운 화장에 브랜드 내임이 있는 캐주얼 옷을 스포틱하게 입고 있었다. 종전의 자기를 거부하는 분위기가 사라지고 새로운 미가 들어난 것같은 인상을 풍겼다.

상담 중 이들 부부는 서로 마주 쳐다 보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때로는 상황에 맞게 화를 내기도 했다. 추측하건데 이제는 아마 이혼을 거론하지 않아도 될 관계가 된 것같은 인상을 풍겼다.

S1과 함께 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S1이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S1이 없는 자리에서 상의해야 할 긴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둘이서만 오게 되었다고 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 자신을 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4회상담의 자아대상 경계선 정립에 치중한 결과가 아닌가 사료된다.

F : "요즈음엔 큰 애가 전처럼 난폭한 행동을 하지 않아서 상황은 좀 호전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화를 잘 내는 것은 전과 비슷하고 이 사람(M을 가리키며)에게 대들고 난폭한 언동을 하는 것은 여전합니다...."

M : "정말이에요. 벼락을 맞을 소리일 지도 모르지만 어떤 때는 그 애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직도 들어요...." (눈물을 흘리며 목이 매인다.)

F : "그래서 말씀인데요. (T의 눈치를 살피다가) 사실은요. 저..... 제 친구 중에 지하조직있지 않습니까?" (또 T의 눈치를 살핀다.)

T : "괜찮아요. 말씀해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못하실 말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M : "그만 두세요. 그 말이라면 그만 뒤요. 당신은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꿈쩍해요. 무서워요. 그러다가 무슨 변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화와 걱정이 섞인 목소리다.)

F : "이 사람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응? 뭘 안다고?" (역시 화가 많이 나 있다.)

T : "알겠습니다. 그럼 그 건 뭘지 모르겠지만 없었던 일로 하고...."  
(말이 체 끝나기도 전에 F가 성급하게 말을 가로 막는다.)

F : “아니에요, 박사님. 이 건 꼭 여쭙어 봐야 될 일입니다. 어떻든요. 친구를 만나 큰놈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학교도 안 가고, 지네 엄마를 위협하고, 때로는 저한테도 두 손을 불끈 쥐고 눈을 부릅 뜨고 달려 들 듯한 자세를 취하는 걸 보면 무섭더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를 다루는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어 봤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 였습니다. 그 방법이라는 게요. 그 방법이라는 것이 좀 그렇기는 한데요. 괜찮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방법이라는 것이요, 응..., 음..., 응.... 그런 아이들이 우리 큰 애를 데려다가 여관같은 곳에 붙잡아 놓고요. 며칠이든 아이가 ‘다시는 집을 나가고 학교를 안 가고 부모에게 달려 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항복을 할 때까지 적당히 때리고 낮본또(일본 사무라이가 쓰던 집)로 치는 흉내를 내면서 죽이겠다고 사실을 방불하게 위협하면 다시는 못된 짓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 번 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큰 애에게는 못할 짓인 줄 알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기가 답답해서요.”

T : “좋은 방법같기도 한데요. 사실은.....”

T의 말이 체 끝나기도 전에 말을 가로 막으며 M의 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M : “안 돼요. 그런 짓을 어떻게 우리아이에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정말 무슨 일이라도 나면 그 때는 더욱 어렵고 힘들게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안 돼요”

F : “안 되기는 왜? 뭐가 안된다는 거야. 그게 좋은 방법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되긴 왜 안돼”(하면서 T의 눈치를 살핀다.)

T : “두 분의 말씀에는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모두 다 아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생각들이니까 따지고 보면 좋은 착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위협을 가해서 아들의 행동을 고치려한다면 그 결과가 좋게 나오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어떤 부작용이 뒤따른다면 그건 훨씬 더 수습하기 어려운 골치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무서운 악몽에 시달릴 수도 있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릴 수도 있고 혹시 외상의 후유증으로 정신분열같은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상담을 받은지가 얼마되지 않은데도 상담을 받기 시작한 이후로 조금씩이긴 하지만 많은 진전을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진전되다 보면 ...”

F :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박사님 말씀 듣고 나니 그렇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하조직의 힘을 빌려서 큰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F의 계획은 이렇게 해서 무산되었다.

이번 회 이후의 상담은 위에서 언급한 역동관계를 중심으로 대결시키고 명료화하여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표현적 상담기법을 활용하여 자기-대상 용해 현상으로부터 자아의 경계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재결구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통찰 위주의 표현적 기법에 의한 상담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2월이 거의 다 되어 갈 무렵에야 S1은 겨우 간헐적으로 등교를 하기 시작했다. 이 즈음의 M이 성취한 변화는 그의 과거에 대한 분노와 좌절 그리고 죄의식의 상당 부분이 청산되어 가고 있을 때에 일어난 일이었다.

S1이 간헐적으로나마 등교를 하기 시작한 심리적인 변화는 어머니인 M이 원시적인 투사를 통해 동일시한 S1에게 매달려야 했던 유기불안이 곧 S1의 문제가 되어 S1은 S1대로 M에게 매달려야 했던 유기불안에 의한 매달림의 결속관계(clinging ties)로부터, 혹은 분열(splitting)된 상태로 상호용해(mutually defused)되었던 현상으로부터 새로 형성된 인정과 신뢰(아직 미흡하기는 하지만)의 통로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놓아 주고, 그리고 해방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학교가 방학에 들어 가고 학생들이 학원 공부에 전념하고 있던 1월(1995년) 중순 쯤 S1은 학원을 등록하고 3학년 수업 준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1995년 6월 18일에 이르기까지의 긴 상담의 채널을 빠져 나오는 동안 F는 F대로 슬이 가지고 있는 역동적 의미인 대상 부전 현상과 M을 초기의 거부하는 대상으로 인식했던 정신내적 부착이 상담을 통해 의식의 세계로 부상하게 되었을 때 그의 슬 문제와 관련된 의존심과 자기학대감을 공략(攻落)하기 시작하여 이를 성공시킬 수 있었고 M은 M대로 남성에 대한 불신임과 피해의식, 특히 아버지로부터 냉대받으며 살았던 어린 시절의 애욕적 파생물인 우울증과 어머니의 과격한 간섭에 의해 삭제된 여성으로서의 주체성 상실이 야기시킨 자기도취적 사고로부터 탈피(의식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결과 그녀의 대상에 대한 고착된 이미지가 개선되었다. 이를 계기로 가정의 만성적인 상호 냉대와 자기도취적 자기학대감들이 경감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M은 그 때까지도 그녀의 잔여감정들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감정들을 S1에게 퍼붓는 바람에 S1은 “어머니를 죽여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때마다 그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 집의 살림을 부수고 S2를 마구 때리며 고향을 지르고 칼을 휘두른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으나 누가 다치고 하는 그러한 큰 사고는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S2는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아 S1과 함께 사는 것이 무섭다며 몇 주일씩 혹은 몇 달씩 할아버지 집에서 기숙하면서 학교에



다니곤 했었다.

S2의 S1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은 S1의 행동이 난폭한 것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그보다 더한 이유는 S2의 대상인 M에게 애욕적인 대상과 흥분시키는 대상단위의 애욕적 파생물을 투사하는 S1의 행위에 대한 적대감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상담이 계속되면서 수 없이 많은 대결과 명료화 그리고 판단과 해석과 교육이 이루어 졌다. M은 이 기간 동안에 자괴적 눈물을 많이 흘렸고 특히 S1의 양육과정에서 아이를 잘못 관리했던 점과 M의 자기-대상 표상에 대한 용해현상이 상담과제로 떠 오를때 마다 과격한 저항을 보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M은 그렇게도 인정하기 싫었던 자기 자신의 성격상의 결함을 인정하고 격리 개별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지게 되면서부터 F와 S1의 M에 대한 심리적 반응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었다. F와 S1의 반응을 수용한 후로 M의 눈에서는 두려움과 분노가 사라진 은화함이 엿보였고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하게 변했다.

M의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 이후의 상담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은 다음과 같다.

1995년 6월부터 1996년 4월 13일 S1이 부모의 간곡한 권유와 못된 친구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는 길만이 그가 재생활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신의 각오에 의해 보스톤에 있는 A고등학교로 유학을 떠나게 될 때까지 비교적 순조롭게 가정생활이 유지되었다.

이 기간에 F의 태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만성화되었던 늦은 귀가 시간이 빨라지기 시작했고 술을 마시는 양과 빈도 수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더불어 골프 연습장에 나가기도 했고 이따금씩 큰아들과 함께 낚시를 다니곤 했다.

S1이 미국으로 떠나게 됨으로써 M과 관련된 F의 라이벌 의식이 경감되고 양육자로서의 포기했던 기능에 대한 죄책감이 의식의 수준으로 부상되어 이를 제거하기위한 자아의 욕구가 F로 하여금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할 수 있게 했다고 하겠다.

S1이 유학을 하게 되므로써 S1은 상징적으로 영원한 가출을 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F와 M의 좋게 변화된 정서에 일시적인 혼란이 있었지만 그 혼란은 그리 오래 계속되지는 않았다. S2는 형(S1)이 유학이라는 합리적인 채널을 통해 집을 떠나간 것이 “어머니(M)에게 잘 보였던 자기때문이 아닌가?” 라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한 때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쉽게 이러한 자책감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다. 비교적 평온한 가운데 생활하게 된 가족의 활기찬 모습을 지켜 보면서 본 사례에 대한 치료적 증재를 종료하게 되었다.

상담에 의해 가족의 현실감별 문제가 해결된 것은 가족원 모두의 대상표상 정

립이 현실적으로 가능한데 있었다. 이러한 치료가 가능했던 것은 가족의 전이에 대한 용전(容傳= containment)이 잘 이루어 졌다는데 있다. 이는 치료자에 의한 전이해석이 대체로 적중했고 이를 받아들이는 가족의 진지한 태도가 뒤따라 준 것에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취약한 자아의 약점인 충동억제 결핍과 좌절내성 부족을 보강해 줄 수 있었던 것은 분노 에너지를 무력감과 혼합하여 새로운 에너지로 변화시켜 창출해 낼 수 있도록 도운데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이한 방어적 운용이었던 원시적 이상화, 초기형태의 투사와 투사적 동일시, 부인, 전능감, 평가절하에 대한 치유는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을 통합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자아의 경계선이 확립되어 자기-대상 용해현상이 분류된 결과에 의해 새롭게 내재화된 대상 항구성(object constancy)의 정립에 있었다고 사료된다.

병적으로 내면화된 대상관계에 대해서는 통합된 자기개념과 자기감지, 안정된 주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치료자가 역전을 활용하여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인생을 재결구할 수 있도록 통찰력 위주의 분석적 치료를 통해서 내면화된 부정적인 대상 이미지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한 결과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DSM-IV에 표준화된 경계선 성격이 가지고 있는 (1) 유기불안의 모면 (2) 극단적인 이상화와 평가절하 사이에서 방황하는 불안한 정동과 (3) 주체성 혼돈 현상 (4) 잠정적으로 자기를 해치려는 것들(금전남용, 성학대, 약물남용, 난폭한 행동)과 (5) 자살기도나 위협 (6) 정서불안감 (7) 단성적 공허감 (8) 부정적이고 격앙된 분노 (9) 순간적인 피해의식과 해리현상이 모두 경감되거나 없어졌다는 사실에서 이 사례는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낸 흥미있는 사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VI. 결 론

본 사례는 대상분열로 인한 자기도취적 자기학대를 위한 한 방법으로서 가출을 하고 등교를 거부한 체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를 배회하던 중학생의 일탈행위와 관련된 사고(思考)와 행동상의 결함을 대상관계이론을 적용하여 대상 중심 가족치료를 실시한 과정과, 비교적 성공적으로 종결한 사례를 예시(豫試)한 것이다.

본 사례를 증재함에 있어서 특별하게 고려했던 점은 개인의 문제는 그 문제의 종류가 어떠한 진단 범주에 속하든 그 병리의 원인이 대상분열과 자기-대상 용해로 인한 자아 경계선의 미정립에 있다는 대상관계이론을 철저하게 준수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적합한 치료적 증재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근간으로 대상(어

머니)의 대상관계 결손에 의한 성격상의 결함을 재정립해 줌으로서 그 여력으로 현재 대상으로서의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는 원칙에 의한 치료가 방해받지 않도록 했다는 점일 것이다.

대상관계이론에 근거한 대상중심 가족치료에 의해 자아 경계선을 확실하게 그을 수 있게 된 대상은 그의 과도기적 대상인 가족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대상의 이러한 자아 기능 회복은 남편과 두 아들에게 투사적 동일시와 부인(denial) 등의 병리적 방어기제를 활용하지 않아도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의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대상의 합리적이고 현실 지남적인 양육태도의 활성화는 남편과 두 아들에게 유기불안을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게 해 주었고 대상(M)에게 매달려야 했던 취약한 자아의 능력을 강화시켜 대상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대상이 노(怒)하거나 유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모두에게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편안함을 느끼게 했다.

다만 큰 아들(S1)의 가출에 대한 강한 욕구는 대상의 변화에 의해 대체로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심층 저변에 깔려 있을 수 있는 미해결된 잔여 유기불안이 미국으로 유학의 길을 떠나게 하여 가출 아닌 가출을 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미국으로의 유학 당시 큰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잔여 유기감,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가출욕구의 합리적인 충족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유학이 부담없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실성은 보장할 수 없다. 이는 오로지 한국에 남아 있는 가족이 어느 정도의 감정적인 거리에서 그와의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유학의 성패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가출은 오늘날 청소년 당사자들에게 커다란 문제를 안겨주는 경계선 증후군(borderline syndromes)의 일종인 행동장애(conduct disorders)로서 평생을 두고 고통을 받아야 할 정신병리일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 있어서도 인고(忍苦)의 통증을 안겨 주는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가족이나 국가적인 차원의 대응책은 미흡하고 한시적이며 이를 중재해야 할 전문가들의 관심과 노력 또한 태부족이다.

가출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피-가학적인 특성을 가진 자기도취적 일탈행위는 장기간의 집중적인 치료적 중재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치료적 중재는 인간관계, 특히 대상과 관련된 심리적인 갈등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극히 미소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방관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에서도 하루 속히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경계선 증후군에 대한 이론 개발과 치료 방법이 제시되어 청소년들에 의한 가출, 폭행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살로 이어지는 개인, 가족, 그리고 사회적인 병신병리가 하루 속히 경감 혹은 근절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임상적 접근이 사회사업가들에 의해 활발히 진행되었으면 한다.

## 참고 문헌

- Bion, W. R., "On arrogance"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Psychoanalytic Congres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1958.
- Bowlby, J., *Attachment and Loss* Vol. 1 :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1969.
- Box, Sally. *Crisis at Adolescence ; Object Relations Therapy with the Family*, Northvale, New Jersey, Jason Aronson Inc., 1994.
- Chatham, Patricia N.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New York, Jason Aronson Inc., 1985.
- Clarkin, John F. & Lenzenweger, Mark F., *Major Theories of Personality Disorder*, New York, The Guilford Press, 1996
- Fairbairn, W. R. D., *Endopsychic Structure Considered in terms of Object Relationship*, In : *Psychoanalytic Studies of the Personality*, London, 1944.
- Luiselli, James K., *Self-injurious Behavior*, New York, Springer-Verlag, 1992.
- Jacobson, E., *The Self and Object World*,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1954, 9 : 75-127.
- Kernberg, O., *Early "Ego Integration and Object Relations"*,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 1972, 193 : 233-314
- Klein, M., *Criminal Tendencies in Normal Children, Love, Guilt and Reparation and Other Works, 1921-1945*, New York, Delta Books, 1975, 1927, pp 170-185.
- Marler, M., Pine, F. and Bergman, A.,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s*, New York, Basic Books, 1975.
- Masterson, J., *The Narcissistic and Borderline Disorders*, New York, Brunner/Mazel, 1981.
- Meissner, W., "Notes on Identification" *Psychoanalytic Quarterly*, 1971, 40: 277-303
- Rinsley, D., *An Object Relations View of Borderline Personality*, In :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s*, edited by Peter Hartocoll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pp. 47-70.
- Winnicott, D., "The Manic Defense", In : *Collected Papers : Through Pediatrics to Psycho-Analysis*, New York, Tavistock Publications, 1958, pp.129-144.